

# '메뉴판식 규제특례'란 무엇인가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규정된 선택형 규제특례 제도

## 1. 제도 개요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지역특구법」에 미리 정해 둔 규제특례 목록 가운데, 지자체와 기업이 특구계획 수립 시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특례를 '메뉴를 고르듯' 선택하여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례 내용이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사업자가 별도의 규제부처 협의를 반복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 규제자유특구에 적용 가능한 메뉴판식 특례는 총 203개(전체 특례는 209개)로, 절차 간소화, 기준 완화, 금지·제한 해제, 적용배제, 권한이양, 기간 단축·연장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특허출원 우선심사,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완화, 학교·도로교통 관련 특례 등 개별 법령상 규제를 특구 내에서 완화·배제하는 조항들입니다.

## 2. 실증특례·임시허가와와의 차이

구분	메뉴판식 규제특례	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샌드박스)
근거	지역특구법에 특례 내용이 사전에 조문화	법령에 기준이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개별 신청
절차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면 즉시 적용 가능	과제별 심의·부처협의 및 부가조건 부과
성격	검증이 끝난 '상시 메뉴' (안정적 적용)	한시적 테스트 (기간 종료 후 법령정비 필요)

## 3. 왜 새로운 '메뉴'가 필요한가요?

- 활용 저조:** 203개 특례 중 실제 신청·활용된 사례는 12개 특례, 23회에 그쳐 상당수 조항이 활용빈도가 매우 적습니다.
- 실효성 상실:** 일반 법령 개정으로 특례의 장점이 사라지거나(일반법 흡수),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 신산업 미반영:** AI, 양자기술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신산업 관련 사항은 현행 메뉴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여 메뉴판을 전면 재정비하고,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귀사(귀 기관)가 제출하신 수요는 특구기업들의 특례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의 기초자료로 직접 활용됩니다.